

서사시의 '세계전도' 를 그리기 위한 여정

한국에서 동아시아, 세계 전체로 확대된 연구

조동일

서울대 교수·국문학

나의 첫 저서는 1970년의 《서사민요연구》(계명대학교출판부)이고, 최근 저서는 1997년의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문학과지성사)이다. 그 사이에 30여권의 다른 저서를 내다가, 27년이 지난 뒤에 처음 다른 내용을 취급 범위를 크게 확대해서 재론했다. 초기작에서 한 작업이 오랜 기간을 거쳐 거대한 규모로 자라나 최근작이 되었다.

초기작에서 한국의 서사민요를 처음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서사민요·서사무가·판소리가 한국의 구비서사시를 이루고 있어, 그 셋을 총괄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작에서는 한국의 구비서사시를 동아시아 각 민족의 것들과, 다시 그밖의 여러 지역의 것들과 함께 고찰해서 세계서사시 일반론을 전개했다. 일관된 방법으로 같은 작업을 하면서, 취급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처음에는 한국 안의 한 지방 지도만 정밀하게 그리고, 이번에는 세계전도를 작성했다. 지도를 그리는 기법은 같고, 축척이 달라졌다.

태어나 자란 곳에서 잉태된 초기 저서

초기작은 내가 나고 자란 곳에서 잉태되었다. 고향 마을인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곡이 산골이고 삼삼기를 많이 하는 곳이어서, 부녀자들이 삼을 삼으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말로 부르는 노래가 많다는 사실을, 구비문학전공자가 되어 되돌아가 현지조사를 통해서 재확인한 것이 연구의 시발점이었다. 근처의 다른 마을은 어떤가 알아보고 서로 견주어 살피는 계획을 세워, 영양군·청송군·영천군으로 이어지는 계곡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영양군 주곡·동부동·신구·북계, 청송군 신기·청운·감연·북동, 영천군 상송·자천, 모두 열 아홉 마을에서 일관된 방법으로 조사를 했다.

그때 나는 대구 계명대학에 재직하고 있어서 현장이 그리 멀지 않았으나, 하루에 몇 번 다니는 시골 버스를 이용하기 불편하고, 숙박처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기온이 영상 35도가 넘는 날에 몇십 리를 걷기도 하고, 영하 20도의

추위를 견디며 냉방에서 자기도 했다. 그렇지만 노래를 부를 줄 아는 분들이 오래 간직하고 있던 비장한 사실을 즐겨 공개했다. 세상에 처음 나온 카세트 녹음기를 이용해 자료를 채록한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 모든 노력의 결정체가 396면 분량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을 때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채록한 사실은 책 뒤의 자료편에 수록하고, 그 앞의 연구편에서는 장르론·유형론·문체론·전승론의 문제를 다루었다. 장르론에서는 서사시의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론에서는 유형과 각편의 관계를 밝히고, 문체론에서는 율격의 원리를 정립하고, 전승론에서는 문학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었다. 상층의 지식이 아닌 하층의 생활에서 진정한 문학이 생겨나고

자라난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 확인하고, 세상에서 행세하는 위치와 문학 창조의 역량은 반비례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그 뒤에는 관심을 줄곧 넓혔다. 구비문학에다 기록문학을 합쳐서 고전문학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거기다가 현대문학을 보태서 한국문학사를 총괄하는 작업을 하고, 다시 다른 나라 문학에도 관심을 넓혀 세계문학사의 전개를 새롭게 이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이른 것이 그 동안의 경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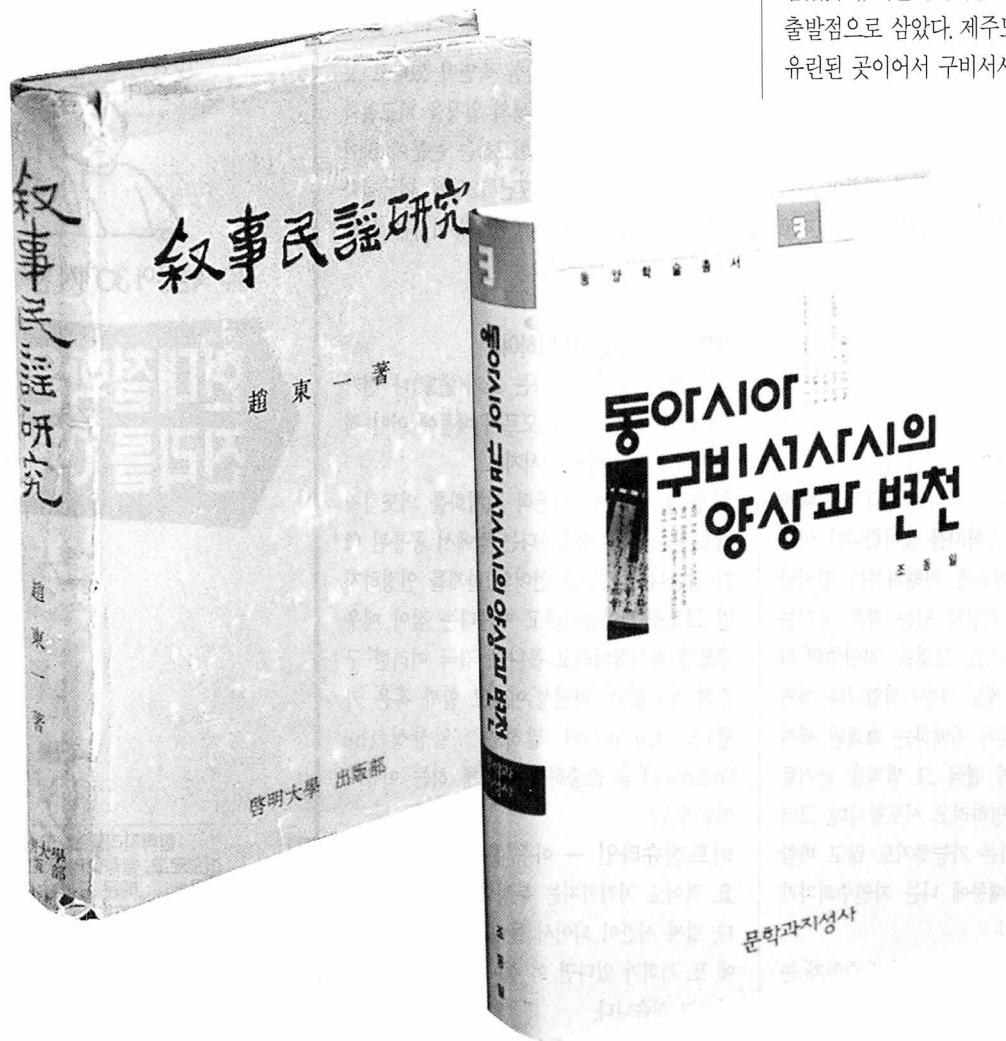
최근작에서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을 논해 세계서사시의 역사를 새롭게 파악한 것은 세계문학사의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성과 가운데 하나이다.

연구의 확대는 세상에서 행세하는 위치와

문학 창조의 역량은 반비례한다는 진리를 더 넓은 범위에서 검증하는 것이다. 구비서사시에 관한 새로운 고찰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한국에서 시작해서 동아시아로, 동아시아에서 그 주변의 아시아로, 거기서 다시 세계 전체로 나아가면서 진행했다. 기록되어 전하는 유럽문명권의 서사시를 세계서사시의 전범으로 삼고, 다른 곳의 자료에 관해서는 그것과 유사한 정도에 따라 진정한 서사시 여부를 가리는 잘못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세계의 변두리라고 하는 데서 억압되고 유린된 민족이 구비서사시를 전승하고 창조해온 주역임을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통해서 밝혔다.

세계 전체로 확대시킨 서사시 연구

초기작에서는 고향 마을을 출발점으로 삼았듯이, 최근작에서는 제주도를 출발점으로 삼았다. 제주도는 억압되고 유린된 곳이어서 구비서사시를 풍부하게



‘단맛’을 찾아 나선 인류문화사

시드니 민츠 지음 《설탕과 권력》을 읽고

유시춘 · 소설가

지너 세상이 잘못된 데 대해 항변을 하는 사례의 한 표본으로 세계 전체에서 주목해야 하고, 또한 가까이 있어 그 자료에 접근하기 쉽기 때문이다. 고향 마을에서 시작해서 다른 마을을 찾아간 것처럼, 제주도에서 시작한 여정이 한국 전체, 아이누·유구·만주족·운남민족군,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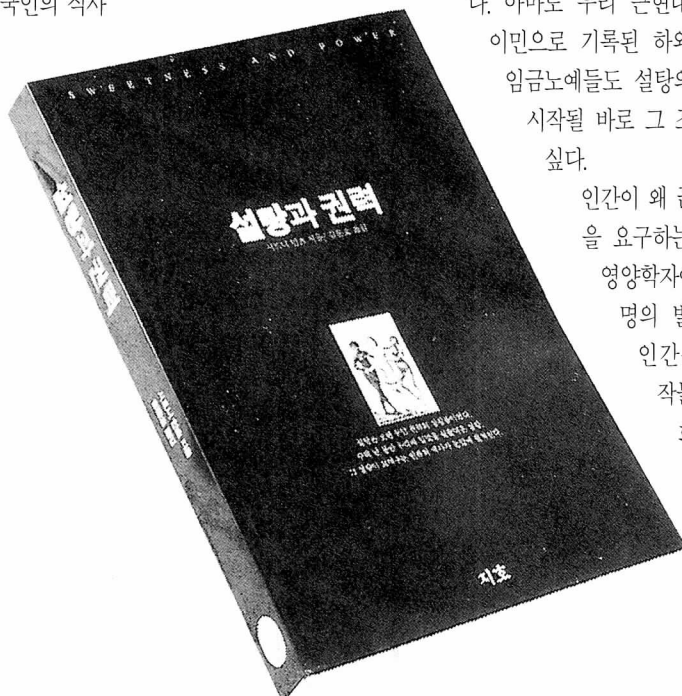
초기작에서 고향마을을 출발점으로 삼았듯이, 최근작에서는 제주도를 출발점으로 삼았다. 제주도는 억압되고 유린된 곳이어서 구비서사시를 풍부하게 지너 세계 전체에서 주목해야 할 사례의 한 표본이었다. 제주도에서 시작한 여정은 한국전체와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 전체로 동심원을 그리며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일본·월남, 몽골·티베트·키르기스, 필리핀·타이·타밀·라스스탄, 니앙가·하와이·끼체·바빌로니아, 그리고 세계 전체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렇게 해서 서사시가 신령서사시·영웅서사시·범인서사시의 단계를 거쳐 변천해오면서, 원시문학·고대문학·중세문학의 역사가 전개되어온 과정을 밝혔다.

그런 곳들을 찾아가 현지조사를 하는 것은 이룰 수 없는 희망이다. 이번에는 출판된 조사보고서를 있는 대로 찾아 이용하고, 여러 언어로 된 연구서를 모아 자료로 삼아야 했다. 국내의 도서관에서는 뜻을 이룰 수 없으므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책을 사고 복사를 하느라고 진땀을 빼야 했다. 자료를 읽어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수고도 만만치 않았다. 출간된 책은 506면에 지나지 않지만, 비용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무게를 헤아리기 어렵다. ❖

희대의 수다쟁이 셰익스피어는 ‘이름다움과 만난 정직은 설탕에 꿀을 넣은 소스’라 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 ‘감언이설’의 현혹을 경계한다. 영어권에도 미옥한 사람들에게 ‘sweet talking’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걸 보면 동서고금을 통해 인간은 본능적으로 단맛을 좋아하는가 보다. 한 인류학자는 신생아가 세상에서 맨 처음 접하는 모유, 또는 설탕물의 시원을 원시인들이 따먹었던 과실의 단맛으로 거슬러 올라가 찾기도 한다. 50년대에 유년을 보냈던 이들은 어찌다 운 좋게 맛보던 ‘사탕가루’의 꿈결같은 달콤함을 기억할 것이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들은 최저임금 노동자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일용품이 된 그것을 오히려 건강에 나쁘다하여 멀리 하려는 경향까지 생긴 실정이다.

저자 시드니 민츠는 책상물림의 ‘먹물’적 상상력이 아니라 푸에르토리코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현장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통찰력으로 설탕이 지니는 정치·경제·사회사의 의미망을 가로세로로 촘촘하게 교직하고 있다. 영국 일부 귀족의 호사품이었던 설탕이 1650년 이후 좀 비싸기는 하지만 그들의 필수품이 되고, 1800년의 대중화 이후 희귀품이 아닌 무산노동계급의 외국산 일용품을 거쳐 1900년에 이르러서 영국인의 식사



설탕이 호사품에서 필수품으로,

가장의 전유물에서 부녀자의

소비품으로, 식민지 ‘설탕섬’과

유럽제국간의 이동에서

아메리카와 그밖의 나라로

확장되기까지 이 박식한

인류학자는 정치·경제·문화사에

걸친 의미망을 가로세로로

촘촘하게 교직해 보여주고 있다.

총 칼로리의 2할을 점유하는 과정을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제국의 자본주의 발전사와 조응시켜 해석하고 있다.

당연히 그 반대편에는 카리브해 연안의 ‘설탕섬’들의 지옥 같은 노동과 흑인노예들의 노동착취와 노예해방 이후 유색인종들로 구성된 ‘프롤레타리아 노예’의 발생이 놓인다. 까다로운 재배조건을 지켜야 하는 사탕수수 경작과정이 농업이라면, 수확 이후부터 설탕생산에 이르는 공업적 가공을 두고 저자는 17세기 영국 본토에서 ‘산업’이 있기 이전에 식민지 농장에서 먼저 공업이 발생했다는 인류학자로서 신선한 주장을 한다. 아마도 우리 근현대사에 최초의 이민으로 기록된 하와이 사탕수수 임금노예들도 설탕의 대량생산이 시작될 바로 그 즈음이 아닌가 싶다.

인간이 왜 끊임없이 단맛을 요구하는가. 정평있는 영양학자에 의하면 문명의 발생과 더불어 인간은 경작하는 작물의 복합탄수화물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맛을 내



유시춘씨.

는 보조식품을 본능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유럽 제국들은 앞다투어 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설탕섬들을 정복했으며 설탕의 보급과 유통을 위해 법안을 만들고 의회를 장악하기 위한 세력다툼을 했다. 설탕산업의 발전은 계급과 직업의 분화 및 기술과 노동의 분리와 전문화를 촉진시켰다. 18세기 백년 동안에 자메이카로 포획되어온 흑인노예만도 70만명에 이르렀다.

설탕이 호사품에서 필수품으로, 가장의 전유물에서 부녀자의 소비품으로, 식민지 설탕섬과 유럽 제국간의 이동에서 아메리카와 그 이외 나라로 확장되기까지의 변화과정으로부터, 이 박식한 인류학자는 정치·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주목할 만한 현상들을 포착해 낸다. 5미터 높이의 사탕수수 작물이 하얀 가루로 변해 찻잔 속에 녹아들기까지의 과정이 함유하고 있는 제국의 욕망, 착취, 불평등, 성차별, 야만성 따위를 가차없이 잡아내고 있어 이 책은 때로 소설보다 흥미롭다. 그런데 적어도 설탕으로 읽는 역사에서 동양은, 조선은 철저한 주변부 후진국을 면할 수 없다. 인도와 중국 등의 계약노동자 이외에는, 우리는 저들의 4세기에 걸친 변화과정을 반세기에 겪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뿐이다. 어쨌든 설탕, 그 단면도는 무척 재미있다. ❖

지호/A5신/384면/14,000원